

## 성병,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성병의 문제점 및 그 근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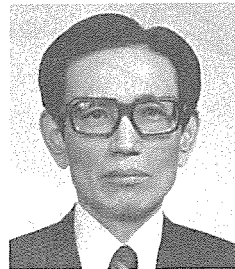
이번 6월호 부터 연재로써 독자들에게

실려 드린다.

현대 사회는 성(性)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성의

문란도 가속화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 규 호

올바른 性 행동은 아름답고,

人生을 윤택하게 만든다

옛부터 성병은 결핵, 나병과 같이 3대망국병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중 결핵과 나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성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성병과 관련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중류층 가정의 이야기인데, 중학교 3학년인 아들과 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는 딸을 가진 집안이며, 그야말로 남부럽지않게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 왔었다고 한다. 그러던중 어느날

밤에 아들이 음독자살을 하고 말았다. 아침에 시체로 변한 아들을 발견하게된 부모들의 놀라움과 비통한 심정을 어찌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상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의 갑작스런 자살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평소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건강하며 공부도 잘 하던 아들이 왜 돌연히 죽음을 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모들은 그 이유를 모른채 의문만이 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사

체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더구나 그것이 성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실에 넋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사실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때 나는 그 누구에게라도 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으며, 어린 소년의 심정을 생각 할때 한 없는 애처로움과 크나큰 슬픔 마저 느끼게 되었다. 성을 모르는 더우기 성병에 대한 지식마저 없었던 이 소년의 한번의 실수로 인한 비참한 결말에 대해 어찌 이 소년의 어리석은마음으로 탓 할수 있겠는가.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오늘날 성병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성병을 창피한 질병으로 알고 있을뿐아니라 성병에 걸리면 불결하고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털어놓지 못하여 치료가 늦어지는가 하면, 혼자서 비밀스럽게 해결하려다가 쉽게 치료될 수 있는것을 시기를 놓치게 되어 더욱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인 것이다.

## I. 성개방과 성병

세계제 2 차 대전후 북구(北歐)에서 시작된 성자유화의 물결은 삼십간에 여러 문명국으로 번져 많은 사람들이 성을 즐기게 되었다. 성에 관한한 폐쇄적이던 우리나라도 해방후 다른 서방문명과 함께 받아들여진 이 물결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성윤리관과 가치관에 변화와 혼란을 일으켰으며, 성개방에 대한 본질적

인 의의나 그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이란 본래 자손을 갖기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남녀간에 깊은 신뢰와 애정을 심어주어 즐겁고 행복한 삶을 갖는데 참뜻이 있다고 본다. 인간사회에는 나름대로의 윤리와 도덕이 있고 법과 질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위배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성을 구가하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의 본질이나 존엄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않고 이를 잘못 이해하며 아무렇게나 즐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의 쾌락적인 면만을 쫓는 경향이 있어 성이 문란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우리는 자주 듣게 된다. 특히 젊은이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할뿐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앞질러 가는 경향이 있어 성의 해방을 저항없이 받아들여 한층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혼모가 생기고 성병이 만연되기도 하여 달갑지 않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어제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사회문제가 발달된 지금에는 특히 성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성의 문란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충동을 자극하는 각종 정보물이 많아져 자칫하면 젊은이들로 하여금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못한채 분별없는 성행동을 유발케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사회

에 던져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미혼모의 문제라던가 성병의 증가현상등은 쉽게 해결되지 못한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성에 대한 의의와 그 가치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규범내에서의 성행동이라면 아름다울수 있으며 인생을 윤택케하고 가정과 사회도 건전해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개인이나 사회가 다같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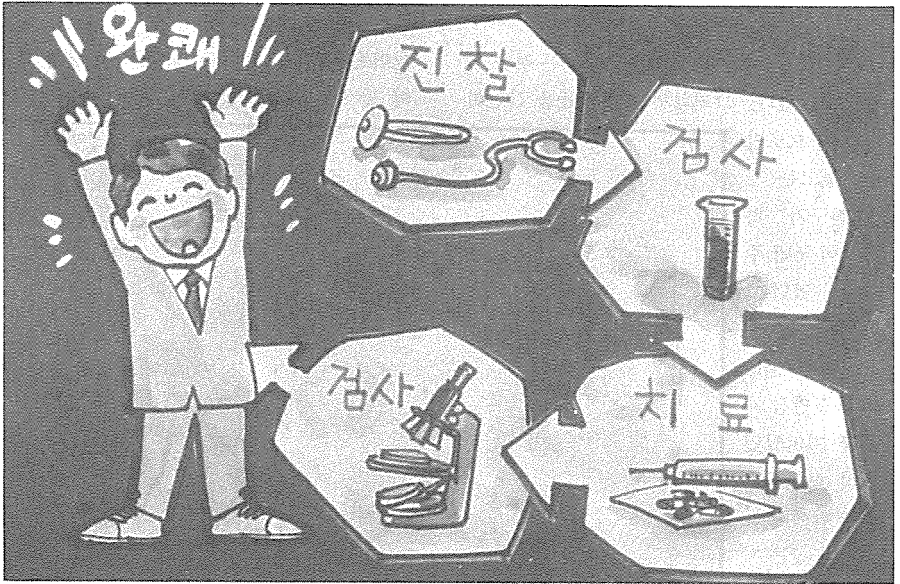
## II. 성병이란 어떤 병인가?

많은 질병중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신체내부에 그 원인이 있는것도 있고 결핵이나 이질과 같이 병원균이 외부로부터 체내에 침입하며 생기기도 하며 또한 암(癌)과 같이 나쁜 세포(細胞)가 점점 자라서 생기는 질병등 그 발생하는 양상이 다양하다. 그러나 성병은 주로 성행위를 통해서 접촉된 부위의 점막이나 피부로부터 성병균이 침입하며 생기는 병으로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전염병의 일종이다. 이와 같이 성행위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에는 여러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독, 임질, 비임균성요도염, 연성하감, 서혜육아종, 성병성임파육아종등 6가지를 성병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성병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을 뿐아니라 그 폭도 넓어져, 성행위에 의해서 전염되는 모든 병을 포함시켜서 명칭도 성병이라 하지않고 “성행위 감염증”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성병이라 하면 5~6종에 불과 했으나, “성행위 감염증”에는 20여종이 포함된다. 종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성병으로 규정된 6종외에도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음부헤르페스” 또는 성기에 사마귀가 여럿 포개진 듯한 “콘디롬” 곰팡이 종류에 의해서 생기는 “트리코모나스”증과 “켄디다”증 그리고 “음”(疥癬) 이나 음모에 붙어 사는 “이”까지도 “성행위감염증”에 포함 된다.

요즘 마스크에서 암에 관해 널리 보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무서움을 새삼스럽게 통감하고 있으나, “암은 일대(一代)요, 성병은 이대(二代)라는 말이 있듯이 암은 환자자신만의 불행으로 끝나며, 결코 자손에까지 전염되는 일이없어 그 불행이 다음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병중에서도 특히 매독은 감염이 되어 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가지 증상이 피부나 점막에 나타나지만 조금도 가렵거나 아프지않기 때문에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할뿐 아니라 매독에 걸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수가 흔히 있고 또한 별로 치료를 하지않더라도 증상들이 슬그머니 없어지므로 병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하여 치료를 도중에서 중단해 버리는 수도 있어 완치가 늦어지기도 한다. 이와같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잠복하기도 하는 상태가 반복되는 동안에 병균은 점점 내부로 깊숙히 파고들어 뼈, 혈관, 심장, 뇌, 척수등을 침범하여 끝내는 폐인이 되거나 사망하게 된다.

또한 매독에 감염된 여성이 임신을 했



을때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으면 병균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로 옮겨가므로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다행히 출산을 하더라도 그 아기는 이미 태내에서 매독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매독의 증상이 피부나 점막 혹은 내장에 나타나게 되며 지체부자유와, 또는 정신박약아가 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매독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까지도 불행을 주기도 하는 무서운 병이다.

또한 만성임질의 경우는 자주 재발이

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뿐 아니라, 남녀 다같이 불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임질균이 눈에 들어가서 실명이 되기도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으나 최근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성병의 일종인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사망율이 매우 높고 더구나特效약이 아직 없기때문에 “죽음의 질병”으로 불리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한국인구보건원 수석연구원〉

〈이달의 정화표어〉

가정에서 뿌린 정직

사회에서 꽃핀 신뢰.

한국기생충박멸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